논어 15편 위령공 6장 · 원문·풀이

子曰：「直哉史魚！邦有道，如矢；邦無道，如矢。君子哉蘧伯玉！邦有道，則仕；邦無道，則可卷而懷之。」

독음 · 자왈 직재사어 방유도 여시 방무도 여시 군자재거백옥 방유도 즉사 방무도 즉가권이회지

쉬운 풀이(요약) · 사어는 나라의 형편과 무관하게 화살처럼 곧았고, 거백옥은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없으면 자신의 뜻을 간직하며 물러났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直 곧을 직 직 / 哉 비로소 재 재

史 역사 사 사 / 魚 물고기 어 어 / 邦 나라 방 방 / 有 있을 유

道 길 도 도 / 如 같을 여 여 / 矢 살 시 시 / 無 없을 무 무

君 임금 군 / 蘧 패랭이꽃 거 거 / 伯 맏 백 백 / 玉 구슬 옥 옥

則 곧 즉 / 仕 벼슬할 사 사 / 可 옳을 가 가 / 卷 굽을 권 권

而 말이을 이 / 懷 품을 회 회 / 之 갈 지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